

인공지능 기반 작물생육 측정

농진청, 딥러닝 기술 적용 시스템 개발
측정 정확도 최대 97.9%로 높게 나타나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해 작물의 생육 데이터(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용 작물생육 측정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작물의 영상을 찍으면 생장 길이, 줄기 두께, 잎의 면적 등 작물별 대표 생육지표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직접 도구를 이용해 측정하지 않아도 사진만으로 간편하게 생육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는 인간의 학습방식을 모방한 인공지능 기술 딥러닝을 적용한 것으로, 딥러닝을 통해 학습한 결과와 실제 측정값을 비교하며 오차를 줄이는 방식을 통해 정확도를 높였다. 이때 학습에 이용한 영상은 10만2,000여 장에 달한다. 연구진에 따르면 작물생육 측정시스템을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에 적용한 결과, 작물별 생육 정보 정확도가 96.9~97.9%로 높게 나타났다. 토마토의 경우 생장 길이, 줄기 두께 등 12개

생육지표를 대상으로 실증시험을 한 결과 97.9%의 정확도를 얻었다. 딸기는 잎의 면적과 폭 등 14개 생육지표를 대상으로 실증시험을 한 결과 97.5%의 정확도를 확인했다. 파프리카는 파프리카의 길이, 폭 등 13개 생육지표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96.9%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 측정시스템은 생육정보를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발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 측정시스템 고도화와 대상 작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물생육 빅데이터 수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강금춘 과장은 "평소 작물의 생육 데이터를 얻기 위해 직접 길이를 측정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의 생육량을 측정해 측정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주택금융공 ‘아깁e-보증자리론’ 가까운 농협은행에서 이용하세요”

25일부터 이벤트 진행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지난 1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아깁e-보증자리론'을 농협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증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주택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대출신청 가능하며, 고정금리로 10~3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상품이다. '아깁e-보증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리가 e-보증자리론 보다 0.1%p 저렴하다. 대출금리는 3월 기준 2.25%(만기 10년)~2.5%(만기 30년)로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가족 사망우대, 사회적 배려중우대 등 각종 요건에 따라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아깁e-보증자리론' 출시를 기념해 오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 내 '아깁e-보증자리론' 신규 고객 중 1,300명을 추첨해 프래오래치먼트와 스타벅스상품권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7월말 농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장기요 본부장은 "이번 '아깁e-보증자리론' 취급으로 고객들의 '보증자리론'에 대한 접근성이 한 층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 신항 적기 건설 최선 다할 것”

양총모 새만금청장 “2025년까지 해수부와 협력체계 강화”

양총모 새만금개발청장은 22일 새만금 물류의 중심이 될 '새만금 신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양 청장은 "스마트 수변도시가 지난해 착공하는 등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동량 처리에 필요한 새만금 신항의 적기 건설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2025년까지 부두 2선석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항 공사가 해상작업인 만

금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새만금 신항은 해양수산부에서 2040년까지 부두 9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 중 2선석은 국비를 투입해 2025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북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2020년 상호금융대상평가'에서 도내 13개 농축협이 우수사무소로 선정돼 22일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가소득 앞장 '결실'

상호금융대상 우수 농·축협 시상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2020년 상호금융대상평가'에서 도내 13개 농축협이 우수사무소로 선정돼 22일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대상평가는 전국 111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재무상태, 고객서비스, 사업추진, 직원 역량강화 등 34개 항목의 상호금융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하는 제도로, 농축협의 건전결산을 통해 조합원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그룹별 1위인 우수상은 삼태농협(조합장 강신화), 순창농협(조합장 선재식), 전북지리산낙농농협(조합장 이안기)이 수상했으며, 장재상은 농축협을 대상으로 재무상태, 고객서비스, 사업추진, 직원 역량강화 등 34개 항목의 상호금융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하는 제도로, 농축협의 건전결산을 통해 조합원 이익

증진(조합장 심재집), 김제농협(조합장 이장용), 변산농협(조합장 신왕철), 황등농협(조합장 최사식) 등이 수상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경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 서 추진 것에 대한 감사하다"며 "농축협 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농업과 농촌, 농협이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LX, LG 신설 지주사의 LX 상표출원에 가처분 신청

이사회 운영위, 사명 사용 금지 요청 등 법률적 방안 강구 주문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가 LG 구분준 고문의 신설 지주사인 LX홀딩스 사명 사용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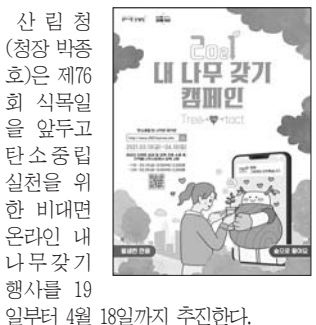
앞서 LX 이사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LG 신설 지주사가 사전협의 없이 LX로 사명(LX홀딩스)을 결정하고 상표출원을 강행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제지하는 법률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LX는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사명감 아래 확고한 주지성과 차별성을 확보해왔다. 따라서 구분준 신설 지주사가 공사와 동일한 사명을 사용할 경우 그간 쌓아온 주지성과 차별성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날 LX 이사는 "LG의 LX 사명 사용은 공공기관의 신뢰성·공신력 하락과 국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는 지난 10년 동안 332억 원을 투입해 LX(Land Expert·국토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브랜딩 사업을 추진,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기관 이미지를 확립했다. 2012년 당시 새로운 CI와 로고 선택을 위해 개최한 후 12개 지역본부와 169개 지사의 간판·옥외·광고물 등을 교체했으며, TV·라디오·신문광고는 물론 홈페이지, 유튜브, SNS 채널로 공사의 핵심 사업을 홍보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실제로 LX가 추진하는 핵심사업인 지적측량은 매년 23만 건이 접수·처리되고 있다. 2030년까지 1조3000억 원이 투입될 지적재조사는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디지털 국토의 토대를 닦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중요성이 높다. 더욱이 LX의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ODA 사업의 경우 정부, 세계은행, UN 등과 협업하는 국책사업으로서 IG와의 오인 혼동성이 높아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크다. 또한 LX는 제20대 김정렬 사장 취임 이후 석촌 싱크홀과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하정보 구축 전담기구로 지정됐으며, 전국 최초로 디지털트윈 표준모델을 구축하는 등 정부의 '한국판 뉴딜'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 있다. 2012년부터 공사가 LX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브랜드로 언론에 보도된 양은 이미 4만3000여 건을 훌쩍 넘는다. LX 이사는 "구분준 신설 지주사는 대기업의 우월적 인지도를 이용해 일방통행으로 추진해온 상표출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주주총회 안전으로 상징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허청에 상표출원이 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법률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산림청, 내달 18일까지

'내나무 갖기 캠페인'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제7회 식목일을 앞두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내 나무 갖기 행사를 4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내 나무 갖기 행사 누리집(www.2021mytree.info)을 이용해 '그루콘'을 배부받아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나무시장에서 묘목과 교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침체한 나무시장을 활성화하고 나무를 심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역신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올해 행사는 2회에 걸쳐 총 5,000매의 그루콘을 선착순 배부할 계획이며, 참여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 1인 1회 참여만 가능하며, 이미 1차 배부는 종료되었으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2차(3월 26일부터 선착순)에 참여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여왕의 샴페인, 국내 첫 출시

하이트진로, '마리 슈투아트' 3종

우아한 여왕의 샴페인 '마리 슈투아트'가 국내 첫 출시된다. 하이트진로(대표 김민규)는 프랑스 샴페인(Champagne) 캄스(Reims) 지역의 160년 전통의 샴페인하우스 '마리 슈투아트'의 샴페인 3종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샴페인 '마리 슈투아트'는 스코틀랜드의 여왕인 마리 슈투아트(1542-1587)의 이름에서 따왔다.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르네상스 핵심 인물인 그녀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번에 출시하는 샴페인 3종 역시 그녀의 이름에 걸맞게 우아하며 신선하고 다양한 풍미를 담았다. '마리 슈투아트 퀘베 라 레네 브뤼(Marie Stuart Cuvee de la Reine Brut)'는 페션 푸르즈 등 달콤한 과일향과 미네랄의 균형감이 뛰어난 샴페인이다. 품종은 최상급 피노누아 50%, 피노누아 40%, 샤르도네 10%이며, 라이트하면서도 드라이해 식전주로 즐기 좋다. '마리 슈투아트 퀘베 라 레네 프리미에 크뤼 브뤼(Marie Stuart Cuvee de la Reine Premier Cru Brut)'는 4개의 프리미에 크뤼포도원에서 생산된 포도를 블렌딩한 샴페인이다. 반짝이는 연



한 금빛의 거품과 자두, 복숭아, 버터향 등 정교하면서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품종은 피노누아 60%, 피노누아 25%, 샤르도네15%로 드라이 타입이며, 탑스터 등 해산물 요리와 잘 어울린다. '여왕의 열정'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리 슈투아트 빠송 헨스 브뤼'은 오렌지 꽃과 바닐라향 등 우아하고 복합적인 풍미가 특징이다. 그랑 크뤼와 프리미에 크뤼 포도원에서 생산한 피노누아 50%, 피노누아 20%, 샤르도네 30%를 최상의 비율로 블렌딩하여 만든 프리미엄 샴페인이다. 생선요리 뿐만 아니라 고급 육류와도 뛰어난조화를 이룬다. 마리슈투아트 3종은 현대백화점(목동점, 천호점, 판교점),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와인샵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운

중기에 자금 지원

전국 지자체들과

이차보전 지원 협약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및 4개 기초지자체(고양, 춘천, 원주, 천안)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금리의 연 1~3%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이차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0년에는 2117개 업체가 약 19억원의 2차보전을 지원 받았으며, 금년에는 약 21억원의 2차 보전 예산이 확보됐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2차 보전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있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 및 정부 등 2차보전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자들이 납부한 공제부금 등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는 대출금리를 기존 대비 신용등급별 0.1~1.5%p포인트 인하해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대출상품인 단기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신용도에 따라 적정한 부금의 최대 3배까지 무담보·무보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 2월까지의 대출실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5억원이 증가한 1,134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극복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고객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666-9988) 및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후보자 모집 내달 5일까지

전북도가 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제19회 전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자로 선발하기 위한 후보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로 제19회를 맞이한 '전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은 고용창출, 매출신장, 지역발전공헌, 우수신제품개발, 장수기업, 창업기업, 경제단체 등 7개 분야별 공적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및 경제단체 대표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선정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도에서 3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상시 근로자 5년 이상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한 경제단체 대표이다.

신청서류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신청기간 소제시·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북도는 오는 4월 9일까지 시·군, 경제 관련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하며, 6월 중 '전북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발표심사를 통해 분야별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서류 중 '재무제표'와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등의 서류제출 기준연도(최근 3년)를 '2017년~2019년' 또는 '2018년~2020년' 중 선택할 수 있게 해 성장세를 이어가던 기업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유호상 기자